

시대하라 다이라[幣原坦]의 『韓國政爭志』와 조선시대 정치사*

김 경 래**

1. 머리말
2. 『한국정쟁지』의 목적과 방법론
 - 1) 집필 동기와 목표
 - 2) '근대적' 연구의 표방과 사료 이용
3. 『한국정쟁지』의 주장과 특징
 - 1) 당쟁의 원인: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
 - 2) 조선 후기 전통사학과의 비교
4. 맺음말

1. 머리말

시대하라 다이라(1870-1953)는 한국에서는 통감부 설치를 전후하여 '新學制'를 기획하고, 대만에서는 대만제국대학의 창설을 주도한 후 초대 총장까지 지내는 등 식민지 한국과 대만의 교육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교육행정가이다. 또한, 그는 한국사에 대한 수십 편의 글을 발표한 역사가로서, 무엇보다 '당쟁'이란 용어를 처음 쓴, 이른바 당파성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907년에 간행된 그의 『한국정쟁지』는 일제 식민사학의 조선시대 정치사를 대표하는 저술로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평가된다. 1970년대 후반 이래 붕당정치론을 통해 당파성론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태진은 시데하라와 『한국정쟁지』를 아래와 같이 평하였다.

조선왕조의 정치를 직접 당쟁으로 규정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일본인들이었다. 1907년에 시데하라에 의해 저술, 간행된 『한국정쟁지』는 그 앞장 역할을 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1900년에 학정참여관으로 한국에 와서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로서, 7년 만에 이 책을 내놓음으로써 당파성 이론의 창도자가 되었다. 당쟁이란 용어를 나름대로의 규정을 붙여 최초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었다.¹⁾

해방 이후 부단히 전개된 학계의 노력에 의해 식민사학의 결과물들은 더 이상 참고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시대 정치사의 경우, 붕당정치론이 ‘상호 비판과 공존’의 모습,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간의 부정일변도 시각에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삼스레 『한국정쟁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 책이 조선의 政爭에 대한 식민사학의 출발인 동시에 근대 역사학의 출발이기 때문이다.³⁾ 시데하라 본인도 자신의 연구가 조선의 政爭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임을 자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한국정쟁지』의 ‘식민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것의 ‘근대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한국정쟁지』의 근대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근대성과 식민성의 결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정쟁지』의 ‘외적’ 배경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막상 글에

1) 이태진, 2003 『(개정판)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29면.

2) 이태진, 1977 「제2장 中央 五營制의 成立過程」 『조선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85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에 재수록): 1985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2003 『(개정판)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태학사).

3) 시데하라 이후 河合弘民, 細井肇, 小田省吾, 瀬野馬熊, 石井壽父 등이 조선시대 정치사 관련 연구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들은 분량이나 이용 자료의 측면에서 『한국정쟁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쟁지』는 식민사학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며 상세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식민사학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에 대한 개요는 이성무, 2007 「서론: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당쟁사』 1, 아름다운날, 30-44면 참조.

대한 '내적' 분석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즉, 식민사학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⁴⁾ 『한국정쟁지』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이 강한 성격의 저술이므로, 학술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국정쟁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부재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교육행정가로서 시데하라의 활동에 주목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들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서 시데하라가 기획하고 실행했던 교육 관련 활동과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⁵⁾ 역사가 시데하라에 대한 본격적 탐구는 한국사 분야 최혜주의 연구가 선구이자 유일하다. 최혜주는 『한국정쟁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사 관련 시데하라의 여러 활동들을 상세하게 추적하였다.⁶⁾ 하지만 한국근대사 연구자로서 그의 관심은 어디

- 4) 이태진, 1985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정석중, 1985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의 과제: 당쟁사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 정음문화사(1994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에 재수록); 김돈, 1986 「조선후기 당쟁사연구의 현황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39(2009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에 재수록); 박광용, 1987 「조선후기 정치세력 연구현황」,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下』, 한울; 오수창, 1987 「조선후기 정치운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下』, 한울; 이성무, 1992 「조선후기 당쟁연구의 방향」,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조선후기 당쟁사에 대한 제설의 검토」, 『국사관논총』 81; 2007 「서론: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당쟁사』 1, 아름다운날.
- 5)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모두 그러하다. 이성열, 2002 「한일 협약 전후 일본인 학정참여관 폐원탄의 교육간섭」, 『교육행정학연구』 20-4; 평영일, 2010 「1905-1910년의 모범교육과 보통학교 일본어 교육」, 『한국교육사학』 32-2; 小澤有作, 1974 「幣原坦論序説: 植民地教育指導者の足跡と思想」, 『海峽』 1; 稻葉繼雄, 1983 「舊韓國における教育の近代化とお雇い日本人」, 『日中教育文化交流と摩擦』; 馬越徹, 1988 「漢城時代の幣原坦: 日本人お雇い教師の先驅け」, 『國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115; 佐藤由美, 1991 「學政參與官幣原坦の韓國教育に對する認識とその活動」, 『教育研究』 35; 李笑利, 2002 「幣原坦の日本語教育政策と〈日語讀本〉」, 『久留米大學大學院比較文化研究論集』 12; 李恒全, 2007 「台北帝國大學設立計畫案に關する一考察: 幣原坦の設立構想を中心に」, 『神戸大學大學院人間發達環境學研究科研究紀要』 1; 田中卓也, 2009 「幣原坦の教育關係資料について: 廣島高等師範學校第二代校長在職時まで」, 『廣島大學文書館紀要』 11.
- 6) 최혜주, 1998 「시데하라의 顧問活動과 한국사연구」, 『국사관논총』 79; 1998 「시데하라의 식민지 조선경영론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160; 2005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9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대동문화연구』 66; 2018 「한국 병합 전후 시데하라 다이라의 행적과 교육론」, 『일

까지나 시대하라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었기에, 당대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한국정쟁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요 정리 이상의 검토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은 『한국정쟁지』의 방법론과 논리를 분석하고, 그 전략과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의 政爭에 대한 인식과 서술의 계보에서 이 책이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쟁지』에서 시대하라가 이용한 사료의 종류와 그것의 활용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정쟁지』가 조선의 정쟁을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없었다. 『한국정쟁지』의 근대성에 대한 검토는 결국 그것의 사료 이용과 논리 전개에 대한 탐구가 될 것이다. 둘째, 『한국정쟁지』의 방법론과 주장을 조선시대 전통사학의 그것과 비교하여, 통시적 맥락 속에서 『한국정쟁지』의 특징을 밝힌다. 시대하라가 이견창의 『당의통략』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양자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찰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⁷⁾ 『한국정쟁지』와 조선시대 전통사학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한국정쟁지』의 특징과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식민사학의 주장에 여전히 타당한 부분이 많고, 이를 재평가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조선 政爭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인식과 서술을 재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조선시대사의 주요 이론들이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식민사학의 극복을 위해 제출된 현재의 통설들이 막상 식민사학과 근대주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봉당정치론을 비롯한 정치사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⁸⁾ ‘식민주의’와 ‘근대주의’를 모두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식민사학의 진정한

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7) 이태진, 2003 앞의 책, 29면.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정쟁지』에서 『당의통략』은 명시적인 이용 사료는 아니었으며, 저자가 제시한 자료 목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극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조선시대 정치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서술하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사학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통설이 식민사학 극복을 위해 제출된 것이기에, 통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민사학의 논의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전통 사학 → 식민주의 사학 → 식민주의 사학의 극복 → 새로운 조선시대 정치사'로 이어지는 연구사의 맥락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를 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축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한국정쟁지』의 목적과 방법론

1) 집필 동기와 목표

시데하라는 1870년 日本 大阪에서 출생하였다.⁹⁾ 그는 1893년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국사과를 졸업한 뒤, 鹿兒島造士館 教授, 山梨縣尋常中學 校長, 東京高等師範學校 教授로 근무하였다. 이때까지 그의 주된 관심 지역은 어디까지나 琉球를 비롯한 '南方' 지역이었다. 시데하라는 대학 학부 졸업 논문으로 류구의 언어와 풍속을 탐색하는 글을 제출하였으며, 鹿兒島에서 근무할 때는 현지를 직접 답사하는 등 열성적으로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그가 제출한 글들은 『琉球の支那と通ぜし端緒』(1895), 『南海史話』(1896), 『南島沿革史論』(1899) 등 대부분 류구와 남방 열도를 다룬 것들이었다. 당시 그는 '신이 만든' 일본 문화가 남쪽으로 흘러가 류구의 문화가 되었으며, 류구가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시데하라가 일찍부터 일본의 제국주의적 언설에 크게 심취해 있었음을 말해준다.¹⁰⁾

8) 이에 대한 전반적 정리로는 김인걸, 2013 『조선시대사 연구가 걸어온 길: '근대 기획' 넘어 서기』 『지식의 지평』 14(2017 『조선시대 사회사와 한국사 인식』, 경인문화사에 재수록); 최종석, 2016 『내재적 발전론 '이후'에 대한 몇 가지 고민』 『역사와 현실』 100 참조.

9) 시데하라의 일생 전반과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혜주, 1998 앞의 논문, 38-49면 참조. 시데하라 본인의 회고록으로는 1953년에 간행된 『文化の建設』(東京, 吉川弘文館)이 있다.

1900년부터 대한제국의 學部顧問으로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시데하라는 비로소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¹¹⁾ 한국에 대한 시데하라의 관심은 한국 체재 동안 韓國研究會란 모임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한국연구회는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부정기적으로 만나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4-5명 남짓한 구성원 가운데 시데하라는 가장 열심히 출석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한 인물이었다. 이 시기 그가 집필한 글들을 보면, 『朝鮮近世史略評』(1901), 『朝鮮儒統傳』(1902), 『朝鮮孝宗清伐つの隱謀の淵源』(1902), 『征韓軍京城占領論』(1903) 등 주로 조선시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또한, 시데하라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고문헌들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이 책들은 『한국정쟁지』의 집필 자료가 되었다. 그는 일본에 귀국할 때도 이를 가지고 갔고, 훗날 東洋文庫에 기증하였다.¹⁴⁾

1905년 統監府가 설치되자, 그 다음 해에 시데하라는 學政參與官을 사퇴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과 관련 활동은 계속 되었다. 먼저 그는 1910년부터 3년 남짓 東京帝大에서 조선사 [한국사] 강좌를 창설하는 일을 맡았다. 그때까지 동경제대에는 ‘국사’, 즉 일본사 강좌만 개설되었고, 조선사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¹⁵⁾ 그런데,

10) 류구의 풍속과 언어에서 일본 고유의 무엇을 찾으려는 시도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전개된 ‘단일민족신화’ 탐구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구마 에이지(조현설 옮김), 2003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89-305면 참조.

11) 그때까지 시데하라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文化の建設』, 24-25면).

12) 한국연구회에 대해서는 최혜주, 2005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467-469면 참조.

13) 『韓國研究會談話錄』(1903, 朝鮮). 1996년 韓國併合史研究資料 17로 간행된 같은 제목의 復刻板(日本, 龍溪書舎)을 이용하였다.

14) 『文化の建設』 27면. 1941년에 그는 자신이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일본의 東洋文庫에 기증하였는데,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한국 체재 시에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동양문고의 시데하라 기증서 중에 『풍암집』, 『민문충공주의』 등 그가 『한국정쟁지』 집필 당시 이용했던 사료와 일치하는 책들이 많이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시데하라 기증본 여부는 幣原圖書, 幣原坦印, 幣原圖書 등의 장서인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ostma.korea.ac.kr/>) 참조.

일본으로 돌아간 후, 한국사에 대한 그의 관심 시기와 주제가 변화하였다. 먼저, 연구 시기의 측면에서는 고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日鮮同祖論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주제 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韓人の教育』(1909), 『朝鮮教育論』(1919) 등을 저술하였다. 1923년부터 식민지 대만의 교육 정책에 관여하게 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줄어들었는데, 이때부터는 ‘極東’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

이상과 같이, ‘류구 → 조선 → 대만’ 등 자신의 이력과 활동 공간에 따라, 연구 주제도 ‘언어 → 정치 → 교육’으로 함께 변화한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한 그의 저술 역시 다분히 현재적 관심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시데하라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인 1904년 東京帝大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1907년 일본 동경에서 간행한 『한국정쟁지』는 조선시대의 역사 가운데 특히 정쟁에 초점을 맞춘 저술이었다. 글의 주제와 목표에 대해 저자는 범례에서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밝혔다.

이 책은 한국의 정쟁이 어떠한 것인가를 논하고 서술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안점[眼目]은 어떤 이유로 그 정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대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정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편하고 또 國情의 조사에도 가장 유익한 것이다.¹⁵⁾

정쟁의 과정이나 양상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무엇보다 ‘당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동인과 서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을 조선 당쟁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즉, 『한국정쟁지』는 동서 분당과 노소 분당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핵심 목표로 둔 글이다. 실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쟁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동서, 노소 분당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일관된 원인을 제시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15) 『東京大百年史』는 시데하라가 1910년 8월 13일부터 1913년 5월 14일까지, 兼任으로 교수를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東京大百年史 資料 三』, 137면). 이 책에 따르면 동경 제대에 ‘조선사강좌’가 정식으로 첫 개설된 것은 1916년의 일이라 한다.

16) 『한국정쟁지』 범례.

시데하라가 조선시대사, 그 중에서도 특히 정쟁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서언’과 ‘개론’의 아래와 같은 언급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내가 접때 한국 정부의 초빙에 응하여 學政에 참여할 때, 과거에 대한 조사는 현재의 일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장래의 계획을 안전하게 한다고 느껴, 公事의 여가에 國情의 연혁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 책이 다루는 政爭의 일 또한 실로 그 가운데 하나인데 (중략) 이조 오백년, 현재 상황에 길들여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쟁에 관하여 그 연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¹⁷⁾

한국인들의 오늘날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원인을 과거의 역사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의 뿌리이자 고질은 黨爭 이외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¹⁸⁾

“과거에 대한 조사는 현재의 일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장래의 계획을 안전하게 한다”는 말이 잘 보여주듯, 조선시대 정쟁에 대한 그의 탐구는 일체의 식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이 점에서 시데하라의 조선 정치사 연구가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현재 상황”, “오늘날의 상태”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당파’를 형성하여 서로 갈등을 벌이는 당대 한국 조정의 상황이었다. 대원군이 ‘조정에 가득한 당쟁을 일소하려 했으나 약간의 효험만 있었을 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官界의 裏面에는 싸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 소속 당파를 묻는 것은 爭端을 도발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배경 상황이 하나 더 있다. 훗날 시데하라는 회고하기를, 자신이 한국에 부임했을 때 ‘日本黨과 露國黨 사이에서 政爭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특징적 사실로 서술하였다.¹⁹⁾ 한국에 온 이래 그는 이들 간의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한국정쟁지』를 저술한 지 1년 뒤에 간

17) 『한국정쟁지』 서언.

18) 『한국정쟁지』 개론, 1면.

19) 『文化の建設』 25면.

행한 『日露間之韓國』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책을 보면, 시데하라는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前後, 러시아의 동향과 한국 조정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 책의 '叙言'에서 그는 '한국이 러일 전쟁의 원인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금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猛烈的政爭'과 그로 인한 '조정의 破裂'을 묘사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인사들의 활동을 한국 "고유의 사대주의"의 발현이라 서술하였다.²⁰⁾ 『한국정쟁지』에서는 '근년 들어 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정도의 언급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분명, 시데하라는 전통적인 양상의 정쟁만이 아니라, 당시 새롭게 등장한 양상의 정쟁도 의식하면서 『한국정쟁지』를 집필했던 것이다.

2) '근대적' 연구의 표방과 사료 이용

'개론'의 첫 부분에서 시데하라는 자신의 연구가 지닌 연구사적 의의를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마땅하도다! 서양인[泰西人]의 밝은 눈[炯眼]을 가지고, 아직 그것(당쟁)을 연구한 사람이 없지 않은가.²¹⁾

그는 자신의 연구가 조선의 정쟁에 대한 최초의 '서양식' 연구임을 자부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최초의 '근대적' 연구를 표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시데하라가 말한 '서양인의 밝은 눈'을 가지고 하는 연구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무슨 근거로 자신의 연구가 그러한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일까? 그 핵심은 사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연구 시각의 '객관성'에 있었다. 시데하라는 자신이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함으로써, 당파의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냉정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시데하라는 자신의 연구가 객관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료의 선

20) 幣原坦, 1905 『日露間之韓國』, 博文館, 15-18면.

21) 『한국정쟁지』 개론, 2면.

택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다면, 시데하라가 『한국정쟁지』 집필 과정에서 이용한 사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 그는 본문을 서술하면서 자신이 참고한 사료들을, 문장의 끝에 夾註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균등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논쟁적 사안이라 생각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문에서 각주로 제시된 자료와 그것의 인용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정쟁지』의 본문 인용 사료와 인용 횟수²²⁾

편명	사료명(지은이)	인용 횟수
제1편 개론	『燃藜室記述』	8
	『松江行錄』(金長生)	5
	『白沙集』(李恒福)	2
	『東野粹言』	1
	『靑野謾輯』(李喜壽)	1
	『風岩輯話』	1
	『人物考』	1
	『朝野輯要』(李長演)	1
	『彙言』(李星齡)	1
	『朝野會通』	1
	『懲愆錄』(柳成龍)	1
	『國朝寶鑑』	1
	『大東紀年』	1
	『漢陰先生文稿』(李德馨)	1
	『江上問答』(權尙夏)	1
	『八域擇里志』(李重煥)	1
	『辛壬提要輔編』(李敏輔)	1
	『勘亂錄』(宋寅明 受命撰)	1
	『隨聞錄』(李聞政)	1
『辛壬紀年提要』	1	
제2편 동서 분당	『燃藜室記述』	10
	『燃藜別集』	1
	『栗谷全書』(李珥, 본집 38권, 습유 6권)	6
	『栗谷年譜』	2

22) 서적명과 저자 등의 서지사항은 시데하라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인용 횟수는 필자가 직접 본문에서 계산한 것이다.

	『石潭日記』	2
	『靑野漫輯』(李喜壽)	4
	『朝野輯要』(李長演)	3
	『國朝寶鑑』	2
	『鯨鱗瑣語』(李濟臣)	2
	『學圃先生遺集』(梁彭孫)	1
	『東閣雜記』(李廷馨)	1
	『東國文獻備考』	1
	『俎豆錄』	1
	『常窩雜記』(李敏輔)	1
	『國朝紀要』	1
	『楓岩輯話』(柳光翼)	1
	『靜菴集』(趙光祖)	1
	『定齋日記』(朴泰輔)	1
	『龜菴敍言』(필사본, 1책)	1
	『朝野會通』	1
	『黨色錄』(필사본, 1책)	1
	『棠山先生實記』(白惟咸)	1
제3편 노소 분당	『宋子大全』	11
	『朝野會通』	7
	『大事編年』	5
	『燃藜室記述』	4
	『明齋遺稿別集』	4
	『兩賢傳心錄』	3
	『江上問答』(權尙夏)	3
	『靑野漫輯』	2
	『國朝人物考』	1
	『江漢集』(黃景源)	1
	『閔文忠公奏議』(閔鎮遠)	1
	『芝湖集』(李選)	1
	『病後漫錄』	1

본문에서 인용된 자료는 총 44종으로서, 『연려실기술』, 『조야집요』, 『조야회통』, 『풍암집요』, 『청야만집』, 『동야수언』, 『대사편년』 등을 각 편마다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연려실기술』의 인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서적은 18~19세기 조선에 많이 등장했던 통사 형식의 야사류로, 내용면에서는 주로 정쟁을 주로 다룬 정치사 서적들이다.²³⁾ 흥

미로운 점은 동서 분당과 남북 분당에 대해서는 『연려실기술』을, 노소 분당에 대해서는 『조야회통』과 『대사편년』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안별로 그에 대한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동서 분당과 남북 분당에 대해서는 『연려실기술』이, 노소 분당에 대해서는 『조야회통』과 『대사편년』에 상대적으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야사류에 더해, 각 국면 별로 정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개인 자료들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다. 가령, 남북 분당에 대해서는 정철에 대한 기록인 『송강행록』을, 동서 분당에 대해서는 이이의 『율곡전서』를, 노소 분당에 대해서는 송시열의 『송자대전』과 윤증의 『명재유고』를 이용하는 식이다.

그밖에도, 시데하라는 ‘법레’에서 본문에 註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집필에 참고한 사료들과 그것의 서지 정보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한국정쟁지』의 기타 이용 자료²⁴⁾

서명	편·저자	형태, 권수
朝野僉載	윤형성	필사본, 20책(별록 2책)
大東稗林	이의철	필사본 9책
南漢紀略	김상헌	필사본 1책
祖鑑		간본 1책
典故撮要		필사본 8책
新舊璿源系譜記略		간본 1책
莊陵志	윤순거	간본 4권 2책
農岩集	김장협	간본 4권
濯纓年譜		간본 상하 합본 1책
景賢續錄		간본 상하 합본 1책
藥泉集	남구만	간본 4권 18책
於于野談	유몽인	필사본 2책
東彙錄		필사본 1책
退溪集	이황	간본 49권 28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西厓集	류성룡	간본 20권 14책

23) 이태진, 1988 「조선시대 野史발달의 추이와 성격」 『우인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안대회, 1992 「조선후기 野史叢書 편찬의 의미와 과정」 『民族文化』 15: 안대회, 2005 「稗林과 조선후기 野史叢書의 발달」 『南冥學研究』 20.

24) 서적명과 저자 등의 서지사항은 시데하라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鶴峯集	김성일	간본 8권 4책
燃藜別集		필사본 19책
明谷集	최석정	간본 34권 17책
仙源遺稿	김상용	간본 원고 4권, 속고 2권, 보유 1권, 합 3책
筮蒙	남형수	필사본 4책
閑居漫錄	정재륜	필사본 1책
公私見聞錄	정재륜	필사본 상하 2책
見聞因繼錄	정재륜	필사본 1책
梅翁閑說		필사본 1책
愚伏集	정경세	간본 원집 20권 10책, 별집 12권 6책
大義源流		필사본 2책
定齋集	박태보	간본 20권 10책
今古雜錄		필사본 2책
同春集	송준길	간본 27권 18책
月汀別集	윤근수	간본 4권 2책
尊周彙編		필사본 15권 13책
小華外史	오경원	간본 12권 6책
三官記	이재	필사본 2책
文谷年譜	김수항 연보	간본 2책
寒岡集	정구	간본 15권 7책
羹牆錄	이복원 등	간본 8권 4책
廣史七集		필사본 47권 20책
谿谷集	장유	간본 27권 12책
海東名臣錄	김육	필사본 9책
華陽語錄	최신	필사본 상하 2책
俟百錄		필사본 6책
佔畢齋門人錄		간본 1책
正祖紀事		필사본 37권 16책
震史記略		필사본 8책
東史會錄		필사본 12책

‘범례’에 제시된 자료들은 총 45종으로, 앞서 본문 인용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야첨재』, 『대동패람』, 『광사칠집』, 『동사회록』과 같은 야사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퇴계집』, 『서애집』, 『학봉집』과 같은 개인 문집류도 여럿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시데하라가 『한국정쟁지』에서 이용한 사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데하라는 통사 형식의 야사류 서적을 주요 줄기로

삼고, 개인 문집들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그가 이용한 자료 중에 官撰 사서는 오직 『국조보감』이 있을 뿐이다.²⁵⁾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연구의 객관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데하라는 야사에 더 신뢰감을 보인다. 심의점의 인물됨에 논한 양사의 상소를 『국조보감』은 숨겼으나 『조야회통』과 『연려실기술』은 기록했다는 것이다. 둘째, 표면적으로만 보면, 시데하라는 조선 후기에 많이 편찬된 이른바 당론서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당론서들은 ‘당파의 눈[黨派眼] 관찰한’ 자료, ‘黨派熱에 부화뇌동한 논’으로서, ‘냉정한 연구’를 표방하는 그에게는 ‘하등의 가치도 없는 자료’일 뿐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뒤에 小田省吾가 『我我錄』(노론), 『黨議通略』(소론), 『八域志』(남인), 『桐巢漫錄』(소론), 『연려실기술』(소론), 『二大原流』(노론?)와 같은 당론서를 이용 사료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²⁶⁾ 시데하라가 당론서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객관성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소전성오는 각 당파의 당론서를 균형 있게 이용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객관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데하라가 이용한 야사류 총서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는 무슨 이유에서 이를 주요 자료로 선택한 것일까? 반대로, 그는 왜 조선 정쟁에 대한 대표적 야사라고 할 수 있는 『당의통략』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을까? 또, 『당의통략』과 마찬가지로 소론 측이 만든 기록임에도 왜 『사백록』은 이용했을까? 이는 해당 책들의 서술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시데하라가 이용한 야사류들은 ‘述而不作’의 원리에 입각해 다른 곳의 자료를 그대로 轉載하거나, 그저 자료들을 나열하는 ‘보여주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책에서 당파적 입장은 은연중에만 드러난다. 반면, 『아아록』, 『동소만록』, 『당의통략』, 『이대원류』와 같은 책들은 논술 형식의 ‘주장하기’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며, 또, 당파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쟁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내세웠던 시데하라였기에 『아아록』 등의 당론서들은 이용하기가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자료였다. 반면, 『연려실기술』과 같은 자료들은 자료 모음집과 같은 구성

25) 일반인은 물론이요 국왕조차 열람이 쉽지 않았던 실록이 처음 영인된 것은 191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26) 小田省吾, 1923 『李朝政爭略史』 『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을 하고 있기에,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서술에 활용하기 수월했다.

다음으로, 시데하라의 사료 비판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범례'에서 그는 해당 사건에 가까운 시기의 사료일수록, 그리고 당사자의 것일수록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료의 선택에는 주의를 기울였다. 즉, 찾아낸 여러 종류의 책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당시에 만들어져 믿을 수 있는 기록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기록들 가운데 해당 당사자의 손에 의해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진상에 대한 판정을 시도하였다.²⁷⁾

실제, 시데하라는 본문을 서술하면서, 여러 지점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가령, 무오사화에 대해 조광조의 발언을 가장 믿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17세에 무오사화를 목격하고, 23세에 갑자사화를 당한” 사건의 ‘목격자’이기 때문이었다. 남북 분당에 대해서는, 같은 목격자의 기록이지만 김시양의 경우 당시 11살이었고, 김장생은 33살이었으므로, 후자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 노소 분당에 대해서는 권상하의 『강상문답』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는데, ‘당시에 보고 들은 자의 기록이므로 믿을 만하기’ 때문이었다.

또, 시데하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설들이 엇갈릴 경우, 이들을 서로 비교하여 진위를 가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령, 남북 분당의 연원에 대한 『혼정록』, 『회산잡기』, 『송강행록』 등 3개의 기록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 『송강행록』을 가장 ‘명료한’ 기록으로 결론 내린다. 그 이유는 『혼정록』과 『회산잡기』에 각각 실렸던 내용이 『송강행록』에는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시데하라는 사료의 신뢰성을 고민하고, 사료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료 비판은 기계적인 원칙의 적용과 일차원적 비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글의 곳곳에서 막연한 추측에 의한 단정도 자주 내렸다. 예를 들어, 기축옥사에서 최영경이 반역의 謀主 吉三峯이라는 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판정하는데, 그

27) 『한국정쟁지』 범례, 1면.

이유는 ‘그의 평생 행동으로 볼 때 악인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세덕의 기사는 날조의 흔적이 없고, 믿어도 될 만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것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3. 『한국정쟁지』의 주장과 특징

1) 당쟁의 원인: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

『한국정쟁지』는 ‘제1편 개론’, ‘제2편 동서분쟁론’, ‘제3편 노소분쟁론’ 등 모두 3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론’에서는 제목 그대로 선조 8년의 동서 분당부터 ‘최근’인 고종대까지 당쟁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본문적인 제2편과 제3편에서는 다루지 않는, 동인 내부의 남북 분열과 북인 내부의 大小 분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다. ‘동서분쟁론’에서는 연산군대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명종대 을사사화까지를 당쟁의 前史로 다루고, 선조 8년 심의겸과 김효원 간의 갈등, 그리고 선조 11년의 이른바 三尹의 뇌물 수수 논란까지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노소분쟁론’에서는 송시열과 윤휴의 논쟁을 시작으로, 송시열과 윤선거, 송시열과 윤증의 반목을 다룬 후, 김익훈의 告變 사건을 둘러싼 노·소론 간의 충돌까지를 다룬다. 결국, 『한국정쟁지』는 동서, 남북, 노소 분당의 원인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총 목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정쟁지』의 구성과 목차

편수	편명	세부 항목
제1편	개론	
제2편	동서분쟁론	제1장 동인 서인의 분쟁은 이조 당쟁의 시초인가? 만약 그 이전에 당쟁의 조짐이 있었다면, 동서 분당과 관계가 있는가?
		제2장 李肇敏의 書室에 있던 김효원의 寢具를 발견한 것은 동서 분쟁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제3장 동서 분당의 요체는 어떠한 점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名目]의 출처는 무엇인가?

		제4장 서원이 분당의 기원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견해인가?
		제5장 심의겸 및 김효원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제6장 심의겸, 김효원 두 사람은 어떠한 제재를, 무슨 이유로 받았는가?
		제7장 제재의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실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가?
제3편	노소분쟁론	제1장 윤휴의 異說 唱道는 어떤 결과는 낳았는가?
		제2장 윤증은 송시열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졌고, 또 어떤 感觸을 가지고 있었나?
		제3장 윤증이 墓文을 송시열에게 청한 사실에 대해, 세상에 서는 어떻게 잘못 전해졌나?
		제4장 무슨 이유로 윤증은 그의 아버지 묘문의 일 때문에 송시열과 등을 지게 되었나?
		제5장 무엇 때문에 김익훈은 비방과 원한의 중심이 되었나?
		제6장 송시열은 김익훈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놓았고, 그 이유와 그로부터 발생한 결과는 무엇인가?
		제7장 윤증으로서, 점점 송시열과 관계를 끊은 은밀한 동기는 어떤 곳에 잠복해 있었나?
		제8장 무슨 이유로 송시열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 田里로 돌아갔는가?

이제 발생 시간 순으로, 동서, 노소 분당의 원인에 대한 시대하라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대하라는 ‘종래의 定說’과 달리, 당쟁의 시작을 선조 8년의 동서 분당이 아니라, 연산군대의 무오·갑자사화로 거슬러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화를 ‘당쟁의 조짐’을 보여준 사건 또는 ‘당쟁의 시초’로 지칭하였다.

이조의 당쟁은 선조 초년에 나뉜 동인과 서인의 싸움으로써 그 기원을 삼는 것이 종래의 定說이다. 그러나 나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 연산군의 때에서 그 기원을 찾고, 선조 초년에 이르러서는 당쟁의 상태가 이미 業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⁸⁾

그 역시 연산군대의 무오·갑자사화, 그리고 중종대의 기묘사화와 선조대의 동서 분당 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동서 분쟁으로

28) 『한국정쟁지』 2면.

부터 시간적으로 너무 멀고,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당쟁의 시작을 연산군대의 사화로 본 이유는 양자 사이에 人的 측면이나 지향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단지, 갈등의 원인이 사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먼저, 무오사화는 김종직에 대한 유자광의 ‘복수’, 김일손에 대한 이극돈의 ‘복수’라는 ‘2개의 복수가 섞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갑자사화의 경우에도, 생모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대한 연산군의 ‘분노’가 주요인이지만, 여기에다 김종직 문하들에 대한 영의정 신수근의 ‘미움’과 ‘원망’도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私怨을 갚았다’는 조광조의 말을 근거로, 연산군대의 사화가 ‘당쟁의 시초’임을 확신하였다.

조광조는 중종 12년 2월에 올린 글에서 연산군대의 사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 하길, “성종 초년 사림을 배양하고 현인을 좋아하고 간언을 받아들였다. 이에 여러 신들이 모두 말하고 거리낌이 없었는데, 종래 권위가 있던 자는 그에 대해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곧 연산군대에 이르러 그 私怨을 드러내어 일망타진의 음모를 내놓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연산군대의 사화를 당쟁의 시초[端緒]로 보는 사정은 이 목격자의 말에 의해 한층 확실해진다.²⁹⁾

시대하라는 이제 선조대 동서 분당부터는 사적인 감정이라는 요소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동서 분당의 과정에 대한 그의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잘 알려진 대로, 그 출발은 명종대에 김효원이 출사 전 권신 윤원형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심의겸이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다. 당시 김효원의 행동은 권문에 출입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윤원형의 사위 이조민과의 친분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조 초년 김효원이 사류들로부터 신망이 높아지자, 야심가이자 ‘狹量’을 지닌 심의겸이 그를 ‘적수’로 여기게 되었고, 이전의 일을 구실로 그의 銓郎 부임을 막았다. 김효원은 심의겸에 의해 자신의 진로가 막혔다는 ‘울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몇 년 뒤 전랑이 되어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의 전랑 부임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심의겸이 다시 김효원을 ‘元胤의 문객’이라 지칭하며 대응하자, ‘양쪽의 감정은 더욱 상하게 되었다’.

29) 『한국정쟁지』 37-38면.

일견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한 것 같지만, 실상 시데하라는 김효원에게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윤원형 집에 머물렀던 김효원의 행동을 변호한다거나, 심의점의 '경쟁심'이 모든 갈등의 시발이라고 본 점이 그러하다. 결정적으로, '심의점은 감정의 인간이며, 김효원은 理性的 인간'이라 규정한 점에서 이는 명확해진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글 전반에 걸쳐 감정이라는 요소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시데하라가 심의점의 인물됨을 이렇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동서 분당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김효원을 지적했던 이이와는 반대로, 시데하라는 그 잘못을 심의점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양쪽 모두가 사사로운 원한 때문이 아니라는 이이의 말은 단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말일 뿐으로 치부되었다.

결국, 시데하라의 동서 분당 과정과 원인에 대한 이해는 “심의점의 ‘경쟁심’ → 김효원의 ‘복수’ → 양자의 감정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심의점과 김효원은 어떤 구조 속 또는 집단 속의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한 개인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들이 각각 어떤 집단이나 경향, 흐름을 대표하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양자의 갈등은 철저하게 사적인 차원의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원인은 감정적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즉, 동서 분당의 名目は 新과가 古과를 대체하려 할 때 발생한, 경쟁에 기초한 感情의 충돌로서, 구질구질한 人新公격으로부터 시작하여 말류의 파도를 져힌 私爭일 뿐이었다.³⁰⁾

다음으로, 노소 분당에 대해서도 시데하라는 당대의 일반적 설명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 일은 흔히 얘기하듯, 숙종대 윤선거의 묘지문을 둘러싼 송시열과 윤증 간의 갈등이 아니라, 효종대 송시열과 윤희의 대립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는 노소 분쟁이 단지 송시열과 윤증 사제 간의 시비 논쟁에서 기초한다고 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송시열과 윤증의 다툼은 그 근원이 오래 전에 발단하여 후에까지 시비 논쟁의 소란에 이른,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

30) 『한국정쟁지』 64면.

에 순서상 노소 분당의 연구에서 우선 그 내막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멀리 그 근원을 거슬러 가면 일찍부터 흥미 있는 중요한 문제가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세상 사람들의 깊이 있는 천착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³¹⁾

저자에 따르면, 노소 분당은 ‘송시열과 윤희의 충돌 → 송시열과 윤선거의 충돌 → 송시열과 윤증의 반목’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했다. 먼저, ‘송시열과 윤희의 충돌’을 보면, 효종대 윤희가 朱子와 다른 ‘異說’을 주장하자 송시열은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효종 장례 시 자의대비의 服制를 둘러싸고 드디어 양자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시데하리는 이 복제 논쟁이 지닌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표면적으로는 ‘학설의 충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의 알력 싸움이었으며, 시작은 예송 논쟁이었지만 결국엔 ‘인신공격’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마침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승하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 조씨가 여전히 생존하니 이 대비의 服과 장례에 관해 송시열과 윤희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를 가지고 단지 학설의 충돌뿐이었다고 속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문록의 역[임진왜란] 전에, 동인 가운데 파가 나뉜 남인과 재래의 서인 간의 알력이 그것에 크게 더해졌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중략) 그 논쟁의 근거가 儀禮의 주소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시작하기 때문이니, 표면상으로는 학설의 충돌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도 없다. (중략) 이 논쟁은 마침내 인신공격으로 퍼져, 남인은 송시열을 중통을 어지럽히고 군부는 무시하는 자라 하여 그를 죄주기를 청하였다. (중략) 이상의 사실에 의해, (중략) 윤희와 송시열의 논쟁에 서인과 남인, 양당의 권력쟁탈이 더해져 마침내 一起一仆하며 학술상 무의미한 알력에 빠졌다는 것을 해명하였다.³²⁾

‘송시열과 윤선거의 충돌’을 보면, 양자는 黃山書院과 東鶴寺 등에서 직접 만나 윤희의 학설에 대한 견해 차로 논쟁을 벌였다. 송시열은 주자의 학설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며, 윤선거에게 윤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윤선거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런 윤선거의 태도에 대

31) 『한국정쟁지』 116-117면.

32) 『한국정쟁지』 123-124면.

해, 송시열과 윤선거의 아들 윤증의 해석이 정반대라는 것이다. 송시열은 ‘윤선거가 윤휴에 심취했으며, 그를 신봉한다’고 믿은 반면, 윤증은 그것은 ‘송시열의 모함이며, 윤선거와 윤휴는 절교했다’고 주장하였다. 시데하라는 송시열의 판단이 정당하였다고 판정한다.

최종적으로 ‘송시열과 윤증의 반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종 10년 윤선거가 사망하였고, 동왕 14년에 윤증은 부친의 墓文을 송시열에게 요청하였다. 시데하라는 『국조인물고』와 『송자대전』에 실린 윤선거의 묘지명을 보건대, “윤선거를 기롱하는 문자는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또한 그를 稱揚하려는 뜻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애초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윤증에게 송시열이 초한 글은 자신의 선친에게 ‘박하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후 현종 15년부터 숙종 4년까지, 윤증과 송시열 간에 초고의 개정에 대한 서신이 여러 차례 오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윤증이 박세채에게 보낸 편지에서 송시열에 대한 그의 ‘악감정’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숙종 7년, 윤증이 송시열에게 보낸 3천여 자의 편지는 송시열에 대한 그의 ‘감정’을 제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송시열은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공격해 이기기에 힘쓰고, 주자의 이름만을 흉내 낼 뿐이며, 북벌론과 같이 大義를 창명하지만 실은 없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 분노와 욕심에 지배받으며, 학문은 성실하지 않다. ‘아버지를 열심히 변론하던’ 윤증은 송시열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결국 숙종 10년경에는 ‘스승을 누르고 아버지를 높여’ 師弟 관계를 완전히 끊기에 이르렀다.

결국, 시데하라의 노소 분당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는 “윤휴에 대한 송시열의 불만과 양자의 충돌 → 윤선거에 대한 송시열의 불만과 양자의 충돌 → 송시열에 대한 윤증의 ‘악감정’과 사제 관계 절교 → 김익훈 사건으로 인한 증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데하라는 오로지 사적이며 감정적 원인에서 출발한 동서 분당의 경우와 달리, 노소 분당은 주자의 학설에 대한 태도나 복제 문제와 같은 학술적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갈등은 곧 알력 싸움으로 바뀌었으며, 윤증 단계 들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요소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윤휴와 윤선거에 대한 송시열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였고 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증은 자기 아버지라는 私的인 관계에 끌려,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조선 후기 전통사학과의 비교

앞서 보았듯이, 시데하라는 자신의 연구가 조선의 당쟁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임을 자부하였다. 그리고, 당쟁의 원인은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정쟁지』의 방법과 주장은 조선 후기 전통사학의 그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양자의 비교는 『한국정쟁지』가 지닌 근대성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가 주요 사료로 활용한 조선 후기의 야사 총서와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가장 많이 인용한, 『연려실기술』과 『조야회통』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양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글의 서술방식에 있다. 『연려실기술』·『조야회통』은 전통적인 ‘술이부작’ 정신에 입각해, 여러 자료들을 轉載하여 ‘보여주기’식의 전개방식을 취한다. 가령, 『연려실기술』은 ‘宣祖朝故事本末’의 ‘東西黨論之分’이 동서 분당을 직접적으로 다룬 항목인데, 여기서는 『석담일기』, 『荷潭錄』, 『掛一錄』, 『江上問答』, 『遲川集』, 『定齋集』 등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한다. 『조야회통』은 ‘肅宗紀’ 항목에서 노소 분당을 다루고 있는데, 국왕의 전교와 비답, 각종 상소와 꺾를 옮겨 싣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정쟁지』는 기본적으로 논술적 글쓰기를 하며, 비판적 분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귀납적 논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정쟁지』에서는 “판정할 수 있다”, “단언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들을 책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양자는 글의 구성과 초점에도 차이가 있다. 『연려실기술』과 『조야회통』은 동서 분당과 노소 분당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다. 가령, 동서 분당의 경우 『연려실기술』의 ‘동서당론지분’은 선조 6년 8월 심의겸이 대사헌에 임명된 일부터 시작하여, 선조 14년 9월 정유길이가 우의정에 임명되었다가 양사의 탄핵으로 체직된 일까지를 모두 싣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정쟁지』는 선조 8년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춘다. 노소 분당의 경우에는 『한국정쟁지』가 동서 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사건들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단순화를 시도한다. 왕실 전례 논쟁이나 주자학에 대한 견해 차 등 노소 분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논쟁의 담

론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물 간의 갈등에만 집중할 뿐이다.

이처럼, 『한국정쟁지』를 조선 후기의 야사 총서와 비교하면, 논증적 서술과 구성 및 초점의 단순화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정쟁지』의 이러한 특징은 비록 시대하라 본인은 공식적인 이용을 꺼렸지만, 조선 후기 전통사학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당론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³³⁾ 일견 ‘보여주기’가 아니라 논술적 글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서술방식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노론의 『아아록』이 단적으로 그러하듯이,是非 분별을 목표로 한 당론서들은 당파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논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전개한다. 반면, 근대적 연구를 표방한 『한국정쟁지』는 객관성을 내세우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료와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정쟁지』와 『당의통략』의 구성을 비교해 봐도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로, 『당의통략』의 구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당의통략』의 구성³⁴⁾

순번	항목 제목	하부 항목
1	宣祖朝(附光海君)	乙亥黨論, 癸未三竄, 己丑鞠獄
2	仁祖朝至孝宗朝	.
3	顯宗朝	.
4	肅宗朝	庚申換局, 壬戌三告變之獄, 己酉擬書, 辛酉擬書, 懷尼之讐, 己巳換局, 甲戌更化, 丙申處分, 丁酉獨對
5	景宗朝	.
6	英宗朝	丁未換局, 己酉處分, 庚申處分, 辛酉大訓
7	原論	.

33) 조선 후기 당론서에 대해서는 『역사와 현실』 85호(2012년)의 특집 “당론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정치사 인식”과 『한국사상사학』 53호(2016년)의 특집 “조선의 역사 만들기 : 정쟁, 기록, 권력”에 실린 연구들을 참고할 것.

34) 1912년 조선공문회가 간행하면서 분류하고 명칭을 붙인 것이다.

우선, 양자는 선조 8년 김효원과 심의겸의 갈등에서 비롯된 을해 분당을 본격적인 정쟁의 시작으로 설정한 점에서 같다. 그런데 『당의통략』이 선조 8년의 을해 분당~기축옥사까지를 순차적으로 모두 비중 있게 다룬다면, 『한국정쟁지』는 을해 분당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축옥사는 ‘개론’에서, 그것도 동서 분당이 아니라 동인의 남북 분열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략히 언급한다. 그런데 동서 분당에 대한 조선 후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을해 분당이 아니라 기축옥사였다.³⁵⁾ 다음으로, 숙종대 송시열과 윤증 간의 회니시비가 노소 분당의 중요 사건으로 다룬 점도 일치한다. 그러나 『당의통략』은 그 둘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 그 배경의 다양한 사안, 오랜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다. 예송 논쟁, 경전 해석 문제, 북벌론, 외척의 정치 참여, 이이와 성혼에 대한 입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조선 당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송시열은 숙종 13년 숙종에게 올린 ‘論大義仍陳尹拯事疏’에서 자신과 윤증의 갈등 및 노소 분립은 단지 묘갈 문제에서 비롯된 개인적 차원이 사건이 아니라, 존왕론과 도통론으로 나타나는 춘추대의와 관련한 문제라 주장하였다.³⁶⁾ 반면, 『한국정쟁지』는 이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거나 아예 거론조차 않는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시데하라는 조선 정쟁의 과정과 사안을 단순화하고, 특정한 시기와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단지 서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계산된 설정이었다. 전통사학의 내용 구성은 조선의 정쟁이 다양한 사안을 둘러싸고 누적적 과정으로 전개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시데하라는 그 모든 문제를 다루기보다 특정 시기와 사안에 집중한다. 동서 분당의 경우에는 기축옥사보다 을해년의 갈등에, 노소 분당의 경우에는 예송 논쟁이나 북벌론보다는 묘지문을 다루는 것이 그러하다. 이는 구조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학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 점은 『한국정쟁지』 항목의 제목이 사건 중심이 아니라 심

35) 단적으로, 『아아록』은 기축옥사를 책의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동소만록』의 경우에도, 을해 분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기축옥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다.

36) 우경섭, 2005 『宋時烈的 世道政治思想研究』,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331면.

의견, 김효원, 윤희, 송시열, 윤증 등과 같은 인물 중심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시데하라는 자신의 주장이 귀납적 논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으나, 실상은 그가 선험적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를 위해 전통사학을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전통사학도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현상들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추출하고 각인시킨 것도 어디까지나 시데하라였다. 사실 조선의 정쟁에서 감정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기에 가장 좋은 소재는 동서 분당이였다. 남북 분당에 대해서는 시데하라조차 감정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노소 분당의 경우에는 애써 禮說과 주자학을 둘러싼 논란을 무시하고, 감정 대립의 차원으로 결론을 이끈다. 어찌 보면, 『한국정쟁지』에서조차 그나마 감정의 충돌이라 설득할 만한 소재는 동서 분당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을 추출하여, 이를 노소 분당에도 확대 적용하고, ‘복수’, ‘미움’, ‘악감정’ 등 감정 관련 어휘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시데하라가 조선의 정쟁에서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정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란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새로운 인간형을 양성하려는 그의 교육정책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시데하라는 학정참여관 취임 직후인 1905년 4월 『韓國教育改良案』을 일본정부에 제출한다. 이 안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5가지 주요 방침 가운데 아래의 두 번째 조항이 주목된다.

한국민으로 하여금 善良하고 平和적인 美性を 涵養하게 할 것을 도모한다.³⁷⁾

여기서 시데하라가 보호국 한국에서의 교육 목표로 ‘선량’하고 ‘평화적’인 국민

37)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V. 統監府의 교육 정책, 「3. 日人 學政參與官 幣原坦의 大韓帝國 學政 改良案」, “第二 韓國民ヲシテ善良ニシテ平和ナル美性ヲ涵養セシメンコトヲ期ス”(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2&itemId=mh&synonym=off&chinessChar=on&position=1&levelId=mh_002_0050_0030)

의 양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⁸⁾ 그리고 ‘美性’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心性의 차원에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점은 그가 같은 해 제출한 다른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서 시데하라는 교육 사업을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는 물질적 사업’과는 다른 ‘정신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민을 偏見, 迷想, 誤解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를 통해, 시데하라의 교육관이 조선의 정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감정이라는 요소 역시 조선이 정쟁에 대한 귀납적 논증으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당시 그의 교육관이 투영된 선형적 결과임을 의미한다.

4. 맺음말

시데하라 다이라의 『한국정쟁지』는 일제 식민사학의 조선시대 정치사를 대표하는 저술이자, 당파성론의 시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책의 식민성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막상 그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한 적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첫째, 『한국정쟁지』의 이용 사료와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둘째, 조선시대 전통사학과의 비교를 통해, 통시적 맥락에서 『한국정쟁지』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의 학부 고문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데하라는 노론, 소론, 남인 등 전통적 붕당 간의 알력이 여전한 상황, 그리고 친일파와 친러파 간의 다툼 등 근래 새롭게 등장한 갈등 양상을 목도하였다. 그는 식민통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일환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1904년에 완성하고, 1907년 公刊한 『한국

3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戰前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어떻게 다시 선량한 시민상을 만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해리 하루투니언(정기인·이경희 옮김), 2011 『착한 일본인의 탄생』, 제이앤씨 참조.

39)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 V. 統監府의 교육 정책, 「5. 日人 學政參與官 幣原坦의 활동報告 총괄」.

정쟁지』였다. 즉, 시데하라에게 당쟁은 결코 지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소해야 할 ‘현재’의 문제였다. 시데하라는 『한국정쟁지』의 목적이 당쟁의 원인을 밝히는 것임을 밝히고, 동서 분당, 노소 분당의 원인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조선의 당쟁은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것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시데하라는 자신의 연구가 조선 당쟁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라고 자부하였다. 비록 그 한계가 분명하지만, 사료 이용이나 서술 방식은 실제 이 책이 근대 역사학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정쟁지』의 주장과 방법론을 조선 후기의 전통사학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야사 총서류의 ‘술이부작’에 입각한 보여주기 방식이나 시비를 가리기 위한 당론서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성을 기치로 내걸고 귀납적 논증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전통사학처럼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다루지 않고, 갈등의 과정과 구도를 단순화하고, 특정한 인물과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전통사학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던, ‘감정’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추출하고, ‘복수’, ‘미움’, ‘악감정’, ‘불만’ 등 관련 어휘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이를 부각시켰다.

시데하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다. 첫째, 분당의 기원을 일반적 설명보다 앞당김으로써, 당쟁의 전체 기간을 늘려 잡았다. 동서 분당은 선조 8년이 아니라 연산군대 무오, 갑자사화로부터, 남북 분당은 정여립 사건 이전부터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노소 분당은 송시열과 윤증 이전에 송시열과 윤휴의 갈등 때부터를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심의겸과 김효원, 송시열과 윤증 등 동서 분당과 노소 분당의 중심인물들에 대해, 어느 한쪽을 감정의 인물로 치환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심의겸이, 후자의 경우에는 윤증이 이에 해당하였다. 심의겸의 “경쟁심”이, 윤증의 “악감정”이 분열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성의 인물”인 김효원과 송시열에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다. 셋째, 모든 갈등을 감정의 충돌로 환원하였다. 시데하라 본인도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정치적 충돌이라고 해석하는 남북 분당은 동서 분쟁이나 노소 분쟁과 같이 별도의 편으로

분리하지 않고, '개론'에 녹여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또, 服制 논쟁이 지닌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학설의 충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의 알력 싸움이었으며, 시작은 예송 논쟁이었지만 결국엔 '인신공격'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시데하라의 『한국정쟁지』는 식민사학의 조선시대 연구에서 식민성과 근대성이 결합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려고 했던 그의 정책상 목표가 조선의 정쟁에 대한 인식에도 작용하여, '개인'과 '감정'을 강조하도록 만들었다. 즉, 본인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쟁지』의 결론은 귀납적 논증의 결과가 아니라, 시데하라가 자신의 현재적·정치적 입장을 투영하여 전통사학을 재구성한 결과였다. '조선시대의 정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질문은 방법론의 문제와 평가의 문제, 이 두 차원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 역시 지금처럼 평가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식민사학이 지닌 '근대성'에 대한 포착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현재 우리의 조선정치사 이해에 작용하는 '근대성'에 대한 자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시데하라 다이라, 한국정쟁지, 당쟁, 당파성론, 분당정치론,
근대 역사학, 식민사학

투고일(2019. 2. 13), 심사시작일(2019. 2. 27), 심사완료일(2019. 3. 11)

〈Abstract〉

Shidehara Taira's *History of Korean Political Strife*
and the Political History of Joseon

Kim, Kyungrae *

Shidehara Taira (1870-1953), as an educational administrator, was deeply involved in establishing education policies for colonial Korean and Taiwan. He planned the modern education system for colonial Korea around the installation period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ook a leading role to found Taiwan Imperial University and later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lso as a historian who published tens of written works on Korean history, he became well-known as the progenitor of the factionalist-nature theory who coined the term “factional conflict” (dangjaeng 黨爭), to describe the political history of Joseon Korea. Despite the series of criticism on the colonialist view of his book, *History of Korean Political Strife* (Kankoku Seisōshi 韓國政爭志), none of them have adequately analyzed it from the inside.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rationales of Shidehara's *History of Korean Political Strife*, and shed a new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in genealogical terms of historiographical perceptions and narratives of Joseon-period political strife through following tasks. First, the types of sources and how Shidehara made use of them will be examined. Second, a its features will be diachronically identifi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hidehara's argument and logics with those of the traditional historiography of the Joseon period. Ultimately, such analyses are intended to provide a starting point to build up an alternative narrative of Joseon political history that will hopefully develop free of colonialist and modernist frames.

Key Words : Shidehara Taira, *History of Korean Political Strife* (Kankoku Seisōshi), factional conflict, factionalist-nature theory, factional politics, modernist historical narrative, colonialist historical narrative

*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